

Dubai유, 1월 평균가격 58.45달러

석유공사, 2005년 비해 18.4% 상승 ... WTI는 65.47달러로 16% 올라

2006년 사상 최고가를 잇달아 기록하며 고공행진하고 있는 중동산 두바이(Dubai)유의 2006년 1월 평균가격이 2005년 평균가격보다 20% 가까이 상승했고 2005년 12월에 비해서도 1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월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평균 58.45달러로 2005년 49.37달러보다 18.4% 상승했다.

2005년 12월 평균가인 53.27달러와 비교해도 9.7% 오른 수준이다.

두바이유 1월 가격은 미국의 허리케인 Katrina 피해로 유가가 가장 높았던 2005년 8월 56.77달러, 9월 56.75달러보다 높아 2006년에 접어들어 고유가 현상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WTI(서부텍사스 중질유)의 1월 현물가격도 배럴당 평균 65.47달러로 2005년 평균 56.46달러보다 16%, 12월 평균 59.42달러보다 10.2% 상승했다.

국제유가 변화

(단위: 달러/bbl)

구 분	2004	2005	2005.12	2006.01
Dubai	33.64	49.37	53.27	58.45
Oman	34.33	50.59	54.33	59.36
Tapis	41.12	58.01	61.51	69.26
Brent	38.18	54.30	56.81	63.01
WTI	41.43	56.46	59.42	65.47
OPEC Basket	36.05	50.64	52.65	-
환율(원/달러)	1156.44	1033.92	1031.98	993.12

국제유가 급등으로 1월 원유 수입물량은 8050만배럴로 전년동월대비 28.9% 늘어난 반면 수입액은 41억9500만달러로 무려 74.6% 급증했다.

<화학저널 2006/02/06>